



광주지역 CIO포럼과 연계하여 정보공유 강화

광주(光州)는 빛의 고을이다. 광주라는 명칭은 고려태조 23년(940)에 처음 쓰여졌다
고 한다. 광주는 1995년 1월에 광주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되었고, 행정구역은
광산구, 북구, 서구, 동구, 남구로 구분되어 있다.

광주 전남북지부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순태 한국알프스(주) 전산팀 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1994년도에 IBM AS400을 사용하는 전산실장 모임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전산인이라면 함께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단은 김순태 회장을 비롯하여 안병서 부회장(파츠닉), 오형근 총무(기아자동차), 최상기
고문(한국캐리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 및 전남북지부 회원사는 3곳의 중심구역으로 분류
되어 있다.

“회원사들이 광주, 전북, 순천 및 여천지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상 제약이 있어



광주지부
김순태 회장



광주지부 회원들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요.”

김순태 회장은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기모임은 짝수 월 마다 6회 개최된다. 올해는 회원사를 30개사로 늘리고, 회원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지역 CIO포럼과 연계하여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순태 회장은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CIO Forum

2005년 10월 28일 광주전남지역 CIO Forum이 창립총회를 가졌다.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가진 CIO Forum에서 한국캐리어(주) CIO인 최상기 이사가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CIO Forum 추진위원회 주요멤버로는 기철 상무(금호타이어), 최상기 이사(한국캐리어), 양균화 부장(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일호 실장(광주보훈병원), 신명호 부장(광주은행), 이창희 부장(닷넷 소프트), 고일상 교수(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전자상거래센터) 등이다.

CIO Forum은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협력, 친목도모, 사회봉사활동, 광주·전남북지역의 산업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다.

최상기 이사가 초대회장이고, 부회장은 정부기관, 제조업, 금융업, 병원, 유통, 학계에서 각 1명씩 총 6명이다. 사무국장 2명, 감사 2명, 고문2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전남대학교 고일상 교수가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CIO Forum을 창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CIO Forum 가입 자격은 광주 전남지역 기업체, 학계, 정부 및

관련 산하기관 CIO와 IT관련 업체이다.

연간 4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등산대회, 등 친목행사를 통해 회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IO Forum은 올해 10월에 열리는 광주 정보통신박람회에 공동참여하고, 산업자원부와 상공회의소의 포럼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CIO Forum의 역할을 신장시킬 방침이다.

올해 2월에 CIO Forum 회원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등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CIO Forum에서 주관하는 2006년 춘계 세미나를 4월 28일 상무지구 센트럴 호텔에서 실시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유비쿼터스(RFID), BI(Business Intelligence) 등이며, 현재 광주지역 CIO 및 IT 협력사들의 관심사항인 정부 제2데이터센터 광주설립 추진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최상기 회장은 “IT도 비즈니스 감각이 필요하다. CIO Forum이 회원사의 니즈를 보완해주고, 정보공유의 장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Users**

글 |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4월 모임에서 광주지부 회원들 모습



CIO포럼은 광주 및 전남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다